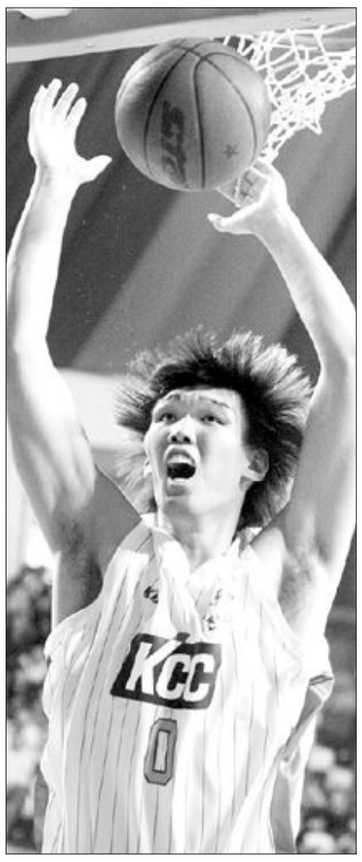

하승진 '3전 4기' 도전

오늘 中 톈진서 亞농구선수권대회 개막…정상정복 꿈 부풀려

왕즈즈·이젠롄·하다디등 전·현 NBA 선수들과 대결도 볼만

남자농구 대표팀 최장신(221㎝) 선수인 하승진(24)이 6일 중국 톈진에서 개막하는 제25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정상 정복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하승진은 이번이 네 번째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이다. 삼일상고 3학년에 다닐 때인 2003년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22회 대회에 처음 출전했던 하승진은 그러나 한 번도 우승컵을 품에 안지 못한 것은 물론 대회 때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에도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3전4기'에 도전하는 하승진에게 이번 대회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를 터다. 2005-2006시즌을 끝으로 사실상 미국프로농구(NBA) 무대를 떠난 입장에서 그동안 세계무대와 격차를 어느 정도 좁혔는지 확인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왕즈즈(32·213㎝)와 이젠롄(22·213㎝), 이란의 하메드 하다디(24·218㎝) 등 NBA 전, 현직 선수들이 출전해 하승진과 기량을 겨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선수로는 최초로 NBA에 진출했던 왕즈즈는 2000-2001시즌부터 5시즌을 뛰면서 정규리그 137경기에 나와 평균 4.4점, 1.7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지금은 중국리그에 돌아와 뛰고 있지만 하승진이 왕즈즈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NBA 스카우트들의 눈에 띌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승진보다 두 살이 어린 이젠롄은 주니어 때부터 자주 대결을 했던 사이로 하승진은 평소 이젠롄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와 이번 대회에서 또 맞붙게 된다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NBA 뉴저지 네츠 소속인 이젠롄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61경기에 나와 평균 8.6점, 5.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결선 리그에서 만나게 될 하다디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지난 시즌 19경기에서 평균 2.5점, 2.5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특히 이란과 경기는 8강 토너먼트 대진과 직결되는 승부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

NBA에서 두 시즌을 뛰며 평균 1.5점, 1.5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던 하승진은 사실 2005년이나 2007년 대회 때는 소속팀에서 벤치를 주로 지키거나 아예 소속팀이 없었을 정도로 실전 감각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 /연합뉴스

"허정무號에 전념하라"

기성용 U-20 월드컵 출전 불가

축구協 "청소년대표 차출 안해"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축 미드필더인 기성용(20·FC 서울)이 오는 9월 이집트에서 열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기술위원회(위원장 이회택)가 전날 회의를 열어 A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기성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U-20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준비에 들어간 대표팀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8일 인천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일본 프로축구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기성용은 다음 날 파주 NFC(대표팀트레닝센터)에 모이는 대표팀에 합류한 뒤 12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에 나선다.

또 9월에는 5일 호주와 A매치에 참가하고 다음날 K-리그 22라운드에 이어 같은 달 12, 19, 27일, 10월2, 11, 24일 K-리그 경기가 차례로 예정돼 있다.

또 10월 10일에는 대표팀이 세네갈과 세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U-20 월드컵이 9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청소년대표팀에도 차출되면 강행군이 불가피하다.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월드컵 본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성용을 혹사하지 않고 아끼면서 대표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팀 차출 불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기념 사진전을 관전했던 허정무 감독도 "유럽 등 선진국에선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는 하급 대회에 나가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선수가 하급 대회에까지 신경을 쓴다면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부상 우려도 크다. 월드컵 본선 자원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성용의 청소년 대표팀 발탁에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 대표팀 사령탑인 홍명보 감독은 "기성용은 꼭 필요한 선수지만 기술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빚 때문에…

아르헨 프로축구 개막 연기

거액의 부채를 지닌 구단들 때문에 아르헨티나 프로축구의 시즌 개막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5일(한국시간) 전했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AFA)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AFA 이사회는 오늘밤 1부 리그를 포함한 모든 프로리그가 애초 예정된 날짜에 시즌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애초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시즌 개막일은 15일이었다.

성명은 이어 "AFA는 이들 구단의 부채 문제를 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훌리오 그론도나 AFA 회장은 TV 인터뷰에서 1부 리그 7개 팀과 2부 리그 10개 팀의 부채가 총 1천500만 달러(한화 약 183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론도나 회장은 TV 방송사가 더 많은 중계권료를 프로축구에 내지 않는다면 프로축구가 제대로 시즌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해양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5일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수욕장에서 개막된 해양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피서객들이 딩기 요트, 바다 카약 등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여자청소년축구 동반 4강 진출

남북한 여자 19세 이하 청소년축구대표팀이 나란히 아시아선수권대회 준결승에 올랐다.

북한은 4일 밤(이하 한국시간) 중국 우한 한커우 스포츠컬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공격수 전명화가 전반에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윤현희가 전, 후반 각각 한 골씩을 보태는 등 화끈한 골 잔치를 벌이며 베트남을 6-0으로 대파했다.

1차전에서 태국을 4-0으로 꺾었던 지난 대회 챔피언 북한은 2연승으로 다시 조 선두에 오르며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각 조 1, 2위가 오르는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다.

북한이 승리하면서 앞서 열린 태국과 2차전에서 5-0으로 이겨 2연승을 거둔 한국 역시 4강행이 확정됐다. 한국은 북한과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차(한국 +8, 북한 +10)에서 밀려 2위에 올라 있다.

한국과 북한은 6일 오후 8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여 조 1, 2위를 다툰다.

이번 대회는 8개 팀이 4개 팀씩 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갖고 각 조 상위 두 팀이 크로스토너먼트로 준결승을 치른다.

이번 대회 1-3위 팀은 내년 7월 독일에서 열릴 2010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는다. /연합뉴스

한국, 세계복싱선수권대회 출전 오늘 판가름

박용성 체육회장-우칭궈 회동

한국이 내달 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릴 세계복싱선수권대회 출전할 수 있을지가 6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5일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과 우칭궈 국제복싱연맹(AIBA) 회장이 6일 점심 때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아마 복서들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우칭궈 회장에게서 받아낼 계획이다.

AIBA는 그동안 한국의 세계대회 출전에 관한 공식 견해를 표명하지 않아 한국 선수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우칭궈 회장은 6일부터 서울과 무주에서 개최될 제1회 월드유스태권도캠프에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한다.

이와 함께 유재준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은 AIBA가 지난 1일 자신에게 1년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AIBA 사무국에 국제변호사를 보내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6일(목)

▲국제친선 리듬체조대회 (13 : 40·MBC)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전(14 : 20·SBS스포츠)

▲프로야구 〈KIA : LG〉(18 : 15·SBS스포츠), 〈두산 : 롯데〉(18 : 10·KBSN S-PORTS), 〈SK : 히어로즈〉(18 : 20·MBCE-SPN), 〈삼성 : 한화〉(18 : 10·Xports)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생산녹지 : 2800평-광동공단인근 특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아파트 단독 다세대주택 상가 토지
부동산경매조정매물
감정가액 15-50% 할인 매물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토지
* 경매 예정또는 진행 부동산 상담*
* 개인 또는 금융권 대출 대환 상담 *
* 부동산 경매 취하 매물 매매 상담 *
* 광주전남권 부동산 투자 상담 *
부동산 감정 및 채권상담 경력 남·녀 사원모집
금호부동산컨설턴트
☎ 224-5959, 010-2831-1733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36-3번지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대보빌딩 임대
★광주 최고 상권의 中心★
[동부경찰서~전남여고 후문 사이]
■ 최고시설의 신축 건물(지상 6층, 지하 1층)
■ 성인 학원(외국어/공무원/일반학원) 밀집지역
■ 최상의 상업 지역(아시아문화전당 입구)
■ 지하철 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역(구.도청역)]
■ 편리한 주차 공간 (20대 동시 주차 가능)
■ 최신 개별냉난방 및 내부인테리어 시설 완비
■ 임대면적 : 층별 167평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1층 : 패스트푸드, 일반 매장, 당구장
(※ 1층 일부 편의점, 학원상담실 입주 완료)
- 3층, 4층 : 학원, 독서실, 일반 사무실
(※ 학원, 정독서실 시설 완비)
- 2층/5층/6층, 입주 완료(학원, 독서실)
임대문의 062)234-1112